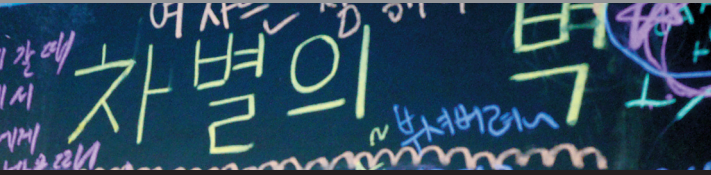


4 >> 구성원 대표 선거 겹치는 ‘콘’ 11월



5 >> 총여존폐 논란 속 ‘인식도 조사’ 공개



학사다이러리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 개설과목확인: 11.17일
- 수강신청: 12.11(목)~12.15(월)
- 등록금 납부기간: 12.16(화)~18(목)
- 수업기간: 2014.12.22(월)~2015.1.14(수)
- 수업료: 1학점당 8만 9,000원



공공기숙사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동대문구청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향의 방문하고, 기숙사 건축 인·허가를 촉구했다

기숙사, 결국 ‘행정심판’으로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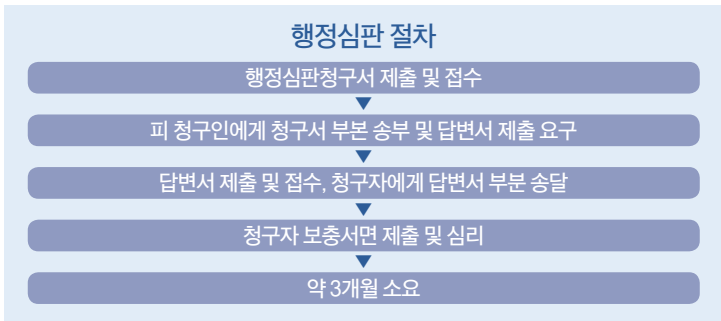
SPACE21 건설사업 현황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공공기숙사 신축이 결국 ‘행정심판’까지 내몰렸다. 행정심판의 경우 평균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착공 예정이던 공공기숙사는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PACE21 건설사업단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공기숙사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달 25일 접수했다. 공공기숙사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동대문구청이 주민과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 탓이다.

당초 동대문구청은 공공기숙사 건축허가가 접수된 후 제기된 일부 임대업자의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업자 측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고집함에



따라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달 14일 동대문구청은 ‘최후 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민원조정 협의체를 추진했으나 일정상의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학교에서 고민 끝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지역발전협의회 측과 성실하게 논의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도 받지 못했고 논의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발전협의회 측이 논의를 진행할 마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기숙사 문제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공이 넘겨졌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다. 건축 인·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주요 반력사유인 ‘민원’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행정심판 사례와 같이, 기숙사 인·허가를 승인하라는 ‘이행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

으며, 곧 이에 대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구청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공기숙사 문제가 지연되면서, 별도로 건축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던 SPACE21사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SPACE21사업의 경우 기존에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수정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달 초 발표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건축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제캠퍼스 SPACE21사업의 경우, 체육관 건립은 건축인·허가를 받아 입찰이 진행 중이다. 또한 외국어대학과 공과대학은 이현호(홍익대 실내건축학)교수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한 평면도가 제작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Newsmaker

명예 ‘학사’ 학위 받은
이정식 석좌교수



“내 생애 가장 특별한 졸업식”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연신 환한 미소를 짓는 한 학자를 위한 졸업식이 지난달 30일 네오리관에서 열렸다. 이 날의 주인공은 이정식 석좌교수였다. 올해 83세인 이 교수는 우리학교 석좌교수 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UCLA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UC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된 그는 유려한 문장과 정치사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으로 한국 내부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이 교수는 미국정치학회 최우수 저작상을 받았고, 제1회 위암 학술상과 제8회 경암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런 그가 관례인 명예 ‘박사’ 학위가 아닌 명예 ‘학사’ 학위를 받게 된 배경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일전쟁 당시 양자강 근방에서 전쟁을 목격한 그는 태평양 전쟁과 6.25전쟁까지 직접 경험한 세대다. 비극적인 시대 상황으로 인해 15세가 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두 명의 남동생과 한 명의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가정이 됐다. 교육받을 기회도 없이 쌀장사를 하던 자신과 딸

리, 대학에 다니는 친구를 보고 박탈감을 느낀 이 교수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학문에 대한 목표는 은 붓글씨 연습을 위해 잠언을 40번이나 반복해서 적은 일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6.25전쟁 중 부산으로 월남한 이 교수는 무작정 근처의 학교를 찾았다.

그가 신홍대에 입학했을 때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학사과정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바로 우리학교의 전신인 신홍대였다. 하지만 그가 신홍대에 입학했을 때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학사과정의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던 그는 스스로 꾸준히 학업을 진행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그리고 60여 년 만에 이 교수는 명예로운 졸업식에 서게 됐다. 처음에는 박사학위를 제안했지만, 이 교수는 자신의 학문을 시작했던 신홍대의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한다.

▶3면으로 이어짐

조인원 총장 3선, 2018년까지 임기

백승철 기자

조인원 현 총장이 차기 15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경희학원은 지난달 31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재적이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써 조 총장은 지난 2006년 13



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0년 14대 총장으로 재선됐고 이번으로 세 번째 임기를 맡게 됐다.

과연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휴머니티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통기획, 고전의 사계 ㉔

김연경 소설가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한 지방도시, 두 번의 결혼에서 세 아들을 둔 중년의 지주 표도로 카라마조프의 저택. 성년이 되도록 타지에서 자란 아들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시작된다. 장남 드미트리리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으려고 온 것인데, 아버지와 각축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젊은 여성 사업가에게 반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정치적 차원부터 형이상학적 차원까지 아우른다



는 막내아들 알료샤가 동분서주한다. 이렇게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친부살해의 테마는 정치적 차원(차르를 죽이다: 혁명)과 형이상학적 차원(신을 죽이다: 무신론)을 아우른다. 소설의 사상적 축을 대변하는 이반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입장에서 출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앞에서, ‘조화’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아이들의 희생을 근거로 ‘반역’을 선언한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

라 그가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의 무신론은 「대십문관」에서 낭만적인 환상 문법을 빌려 표현된다. 여기서 대십문관은 ‘그’(=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가 거절한 악마의 세 가지 유혹(‘기적’과 ‘신비’와 ‘권위’)을 가까이 받아들였노라고 고백한다. 인간이란 너무도 나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버거운 자유의 짐을 털어주고 대신 빵(‘기적’, ‘신비’)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경배”할 수 있는 대상(‘권위’)을 제공한 다음 ‘신 없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했다는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이슈 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황철수 단장의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마지막 연재

>>6면



시선

사설

차기 총장, 새 희망 제시
기대해도 좋은가

대학알리미의 올해 마지막 공시가 10월 30일 발표됨에 따라, 예정된 110개 세부항목 모두가 공개됐다. 이번 10월 공시자료까지 짚어봤을 때 우리학교의 교육과 연구 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는 뚜렷하다.

우선 교육여건에서는 ‘강좌당 학생 수용 규모’ 문제가 눈에 띈다. 비록 전임교원의 수업담당 비율이 상승했지만, 소형 강의가 지속적으로 줄고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는 학습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수강인원이 늘어난 강좌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피드백이 적어지고, 토론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문의 탁월성을 강조해 온 우리학교의 교육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나 화상강의 인프라,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역시 의미 있는 변화는 엿보이지 않는다.

연구 부문에서는 교내 연구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교외연구비 수혜실적도 소폭 개선되었지만 다른 상위권 대학과의 격차는 너무 커 보인다. 물론 교수 개인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이를 격려하고 견인해낼 수 있는 대학본부의 활동 역시 필수 조건이다. 교수의 연구실적이 경향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대학의 연구 지원이 줄어드는 현상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의 공시까지 우리학교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문제 해결’이다. 사실상 교내 연구비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 대형 강의가 늘어나는 것 등은 재정문제가 불거진 뒤에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가 그야말로 ‘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재정과 관련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기 힘들다. 하루아침에 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다시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이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의 내용을 통한 대책은 ‘절약’이지 ‘해결’이 아니다. 단순화하면 재정을 최대 수준으로까지 줄여, 문제를 잠시 진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랍는데 있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낡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를 보다 진작시킬 수 있는 물질 토대인 ‘재정’이 지난 한 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내년에는 어떤 전망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지를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구성원이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역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 몇 개를 가지고 너무나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편린들을 모아보면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마침 차기 총장 선임이 이뤄졌다. 차기 총장이 11월 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즈음에는 무언가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게 관촬을 것인가. 많은 구성원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15최고 글로벌 대학평가
우리학교 500위권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10. 27~10. 3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국캠 멀관앞 대자보와 외대 대자보의 내용’(2014.10.29)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김동근 학생의 1인 피켓 시위에 대해 가슴 아픈 행동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또 한 김동근 학생을 비판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다성평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총여학생회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나태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성평등을 강조하며 글을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홈페이지 계정도용 사건으로 드러난 온라인 현실

정보시대 걸맞은 ‘경희’돼야

이승연 기자
(leesy0317)



유엔(UN) 브로드밴드위원회는 2014년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29억 명에 도달해, 전 세계 사람 중 4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190개 국가 중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인인구의 하루 평균 모바일 사용시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에서 무가지를 읽는 모습은 보기 어렵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손에 자리하고 있다. ‘정보화시대’가 아닌 정보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학교의 태도는 옛날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도용 사건은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도용된 관리자 계정으로 올라온 글들은 황당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처는 4시간이 걸려서 ‘글을 삭제’하는 것이었고, 외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번 사건의 원인 탓이었다.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했다”는 정보지원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다. 발달하는 해킹프로그램에 발맞춰 보안 절차가 번거로울 정도로 많아지는 시대흐름에 비춰볼 때,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비밀번호라니! 다

헝스럽게도 홈페이지 관리자 ID의 권한이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관리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도용된 ID가 다른 관리자, 예를 들어 학교에 등록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응이 늦었던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학교 측은 도용된 ID를 통해 올라온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출판문화원에 소속된 보안 담당 직원이 없어서 보안업체와 연결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 게시글을 발견한 직후 보안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개발자의 개인적인 사정과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보안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비교적 단순한 계정 도용문제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학교의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학교가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사건 이후 보안에 신경 쓴 조치들이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거대한 ‘온라인’ 속 경희를 운영하는 학교에 걸 맞는 예산배정도 필요하다. 보안뿐만 아니라 우리학교가 논의했던 온라인 강의든, 지난 제1577호에서 우리신문이 이야기했던 E-BOOK 이든 개선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아니, 최소한 모바일 화면으로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제대로 보이길 바라는 것조차 욕심일까.

마무리했다. 댓글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장영운 교수가 지난 24일 대한소화기학회 제2차 평의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장영운 교수,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선임/헬스경향, 2014.10.27) 임기는 1년이다. 장 교수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된 위장관질환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암발생에 관여하는 한국인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위암환자 직계가족에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암발생의 중요원인인자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제20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우수구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차 유럽소화학회에서 톱 포스터에 선정,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1~2012년판’에 등재되는 등 국내외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 미국의 유명한 학교 평가 전문매체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주, 유럽, 아시아, 대양주 등 4개 대륙 49개국을 대상으로 대학 순위를 평가해 ‘2015 최고 글로벌 대학들’이라는 제목으로 500위권 대학 명단을 발표

했다.(세계 500위 대학중 韓 11개뿐... 中 28개·日 17개/문화일보, 2014.10.29) 평가 결과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학이 11개 포함됐다. 우리학교는 100점 만점 중 27.5점을 획득해 500위권 대학에 포함됐다.

우리학교와 삼성전자가 30일 국제캠퍼스 르네상스홀에서 양 기관의 동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경희대-삼성전자, 산학협력 체결 및 평화콘서트 개최/머니투데이, 2014.10.30)

이번 협약식은 조인원 총장, 이승한 국제부총장,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 등 우리학교 관계자와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동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삼성전자주식회사 DS(Device Solution) 부문 소속 우수 임직원의 경희대학교 겸임교원 위촉 ▲경희대학교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삼성전자주식회사 DS부문 유휴재원 내 실습기자재 및 장비 기증·지원 ▲삼성전자주식회사 DS부문 임직원 재교육을 위한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설·강사 및 프로그램의 이용 및 운영 ▲양 기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애정’ 어린 관심이
좋은 대학을 만든다

세시봉

김윤철 <보도팀장>



프로야구가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7년 연속 프로야구 관중 수는 500만 명을 넘었고, 포스트시즌 티켓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다. 야구가 절정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구단의 성적과 선수의 활약에 울고 웃는 이들도 늘어간다. 그렇지만 팬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울고 웃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팬들의 요구는 ‘팁’을 움직이기도 한다.

얼마 전 ‘한화 이글스’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해 이슈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한화 팬들은 ‘사상 최초로 구단이 아닌 팬들이 선임한 감독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화 팬들은 한화 그룹 본사 앞에서 김성근 감독의 선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결국 소원은 이뤄졌고, 최근에는 한화 팬이 자다가도 웃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자다가도 ‘성질’이 뻗치는 팬도 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 팬이다. 선수단과 프런트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결국 팬들은 ‘야구하기 싫으면 둘 다 고마 관두빠라’고 1인 시위 중이다. 구단은 애써 무시하는 중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팬이 없으면 구단은 무의미하다.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인 것들을 진심으로
구성원 모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화와 롯데의 팬들에 관한 이야기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11월에 총학생회, 교수의회, 노동조합 모두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정치가 그저 욕먹는 대상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욕하는걸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욕하던 이가 그날 야구 스코어는 기억하는데 국정감사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전혀 모른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것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표자는 결국 ‘대중’이 만든다. 우리학교의 구성원 대표 역시 교수, 직원, 학생들이 표를 모아 선출한다. 그리고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그다음은? 대표자가 구애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다. 이들이 잘 이끌어 가는지 ‘애정’이 없다.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대표들에게 오히려 ‘비판’은 고마울 지경이고 ‘냉소’가 익숙하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일지 몰라도, ‘해보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지금 우리학교는 한국시리즈는 커녕 ‘가을야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지를 잘 판단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당장 대학구조개혁과 같이 구성원 간의 이해가 엇갈릴 사안이 산적해있다. ‘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인 것들을 진심으로 구성원 모두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3년 연속 쫓겨한 한화 팬들처럼, 몇 년 힘들어봐야 ‘냉소’ 대신 ‘열정’이 생길 것인가. 적극적인 팬이 가득 하리라 믿는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이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기(株))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림)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연구비 수혜실적 성대, 연대 절반 수준 강좌수 축소, 대형강의 증설 추세 지속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우리학교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해당항목 10위권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학기 논란이 됐던 ‘대형강의’ 증가 추세는 이번 학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지난달 30일 공시된 교원 강의담당 비율, 학생규모별 강좌수,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등 2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전임교원 1인당 논문수’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학교의 2013년 국제전문학술지(국외논문)에 게재된 1인당 논문수는 0.626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국내논문)에 게재된 1인당 논문수는 0.522편이었다. 이는 사립대학 평균(국외논문 0.318편, 국내논문 0.526편)이나 수도권대학 평균(국외논문 0.468편, 0.551편)에 견줄을 때 다소 우수한 결과지만 지난해 우리학교의 1인당 논문수(국외논문 0.63편, 국내논문 0.545편)보다는 모두 하락했다.

이런 1인당 논문수의 하락은 연구비 수혜실적과도 연관돼있다. ‘전임교원의 연구비 수혜실적’ 항목 중 2013년 우리학교 교수 1인당 연구비는 8,700만 원으로 해당항목에서 상위 10위안에 속한 사립대학인 성균관대(1억 8,400만 원)나 연세대(1억 7,300만 원), 서강대(1억 4,900만 원) 등과 견줄을 때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연구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2011년 371건의 연구에 247억 원을 지원하던 교내연구비는 2012년 41건에 165억 9,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3년 113억 1,000만 원으로 더 하락했다. 1인당 교내연구비로 환산할 경우 2011년 1,900만 원에서 2013년 950만 원으로 반토막으로 줄었다. 2013년 불거진 재정문제의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외연구비의 경우 2011년 1,010억 원에서 2012년 1,070억 원, 2013년 1,1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1인당 연구비 역시 7,200만 원 수준에서 7,75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대학들과의 격차는 상

당했다. 성균관대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1억 6,400만 원, 연세대는 1억 6,500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연구성과에서 중시되고 있는 국외논문에서, 교원 1인당 각각 0.9편과 0.8편을 게재했다.

▲교육여건

‘학생 규모별 강좌수’의 경우 지난 1학과 마찬가지로 강좌수는 줄고, 소형강의의 축소-대형강의 확대 경향이 반복됐다. 2012학년도 2학기에는 4,062개의 강좌가 개설됐고, 이후 2013학년도 2학기 3,984개, 2014학년도 2학기 3,685개로 그 수가 줄고 있다. 소형강의(수강인원 20명 이하)의 비율은 지난해 29.5%에서 이번 학기 21.4%로 8.1%포인트 낮아진 반면 대형강의(수강인원 50명 이상)의 비율은 18.9%에서 21.8%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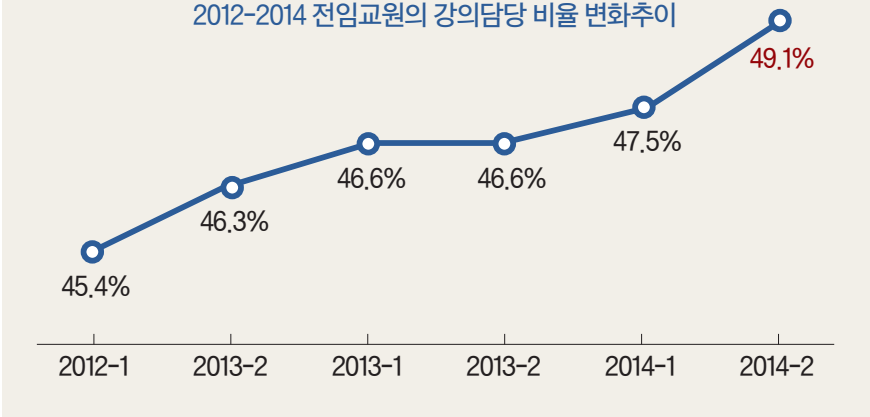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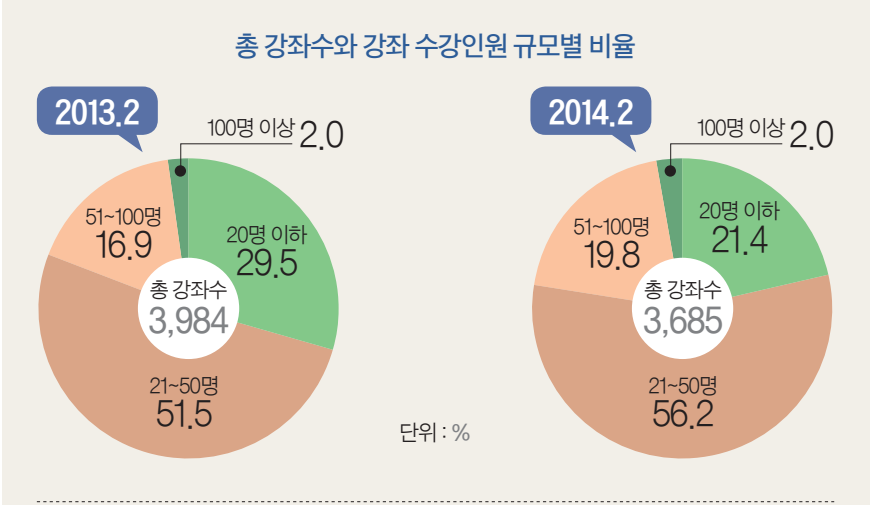
반면에 전임교원 1인당 강의담당 비율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49.1%를 기록했다. 2012학년도 1학기 45.4%를 최저점으로 46%대에 머물렀던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지난 학기 47.5%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2학년도 1학기 34.5%를 최고점으로 이번 학기 들어 31.4%로 낮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에서 제시했던 강의수 감축과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증가 계획과 일치한다. 때문에 단순히 올해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앞서 살펴본 연구와 교육여건 영역의 변화양상은 재정과도 연관돼 있다. 이번엔 공시된 항목 중에는 재정상황과 연관된 것들도 있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의 경우 지난해 26.3%에서 올해 26.8%로 다소 늘었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매출액 역시 16억 2,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현재 대학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대부분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유추해볼 수 있는 내년 재정현황 관련 공시정보가 주목된다.

2013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와 논문수				
	1인당 교내연구비	1인당 교외연구비	1인당 국내논문수	1인당 국외논문수
성균관대	1,997만 원	1억 6,428만 원	0.4	0.9
연세대	747만 원	1억 6,576만 원	0.4	0.8
서강대	682만 원	1억 4,281만 원	0.6	0.5
고려대	979만 원	1억 3,650만 원	0.5	0.8
한양대	1,375만 원	1억 2703만 원	0.6	0.7
경희대	948만 원	7,759만 원	0.5	0.6



2011~2014 도서관 예산 추이		
	총 예산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	학생1인당 자료구입비
2011	1.5%	20만 9,100원
2012	1.4%	20만 6,600원
2013	1.3%	20만 8,000원
2014	1.0%	15만 원

▶1면에서 이어짐



지난 10월 31일 네오누리관에서 이정식 교수의 명예학사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명예학사학위 수여식에서 조인원 총장은 “세계적 석학인 이정식 교수와 같은 분이 명예학사학위 수여를 수락해주신데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다시 한 번 존경한다”라고 말했다.

연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이 교수는 졸업가운을 입고 연단에 섰다. 모국에서 60년 만에 맞는 졸업식 행사에 감격에 젖은 듯 그는 몇 번이나 목이 잡혔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신홍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 교수는 그가 이룬 모든 공을 학교에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은 인생의 준비과정이다. 100세 시대인 만큼 4년을 충실히 보내 그 기초를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충실한 대학생활에 대해 “전공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연구역량을 강화해 ‘Toward Global eminence’를 달성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며,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역경을 딛고 성취한 그의 ‘졸업식’이 진정으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연설 내내 자신의 성취를 타인의 공으로 돌리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빛난 겸손의 미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한 번 그의 졸업을 축하하는 존경의 박수를 전한다.

2014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5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6회 짝을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비전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자: 2014년 10월 6일(월)~11월 17일(월) 17:00
- 대 상: 교수, 교직원
-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pr@khu.ac.kr
-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2014년 12월 중 <Magnolia 2014-1부 목련회>의 시상
- 문 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Towards Global Eminence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식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10. 6(월)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성적/상업→강의평가→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자장'을 클릭
 -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입자별로 올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클릭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 나. 평가 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창닫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참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식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지원과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2004~2007학년도 핵심교양 이수면제 규정에 의거 (구)핵심교양과목의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현 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중, 2014-2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가. "대학영어"
 -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의문작성법"
3. 면제기준 및 자격
 - (※ 기타 자세한 이수면제 기준은 첨부 :핵심교양 이수면제 기준표) 참조
 -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료 계열별 TOEFL, TOEIC, TEPS, G-TELP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센터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 나. 사고와 표현 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1단계 :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4. 신청기간 : 2014. 11. 10(월) ~ 12. 12(금) 17:00까지
5.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증명서류 원본 (신청 시점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서류만 접수가능)
7. 신청자 유의사항
 - 가. 2014-2학기 현재 상과목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써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라. 공학인증(ABECK) 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 바람.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제40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조인원 총장과 함께 하는 Book Talk

- 대 담 : 조인원 총장, 김민영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미래정치'의 회상
-공감과 연결의 또 다른 지평을 찾아서
- 일 시 : 2014. 11. 13(목) 16:00
- 장 소 :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특별 프로그램 : 독서토론회 40회 기념 전시회
▶ 2014. 11. 5 (수) ~ 11. 13 (목)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대담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별이 탄생하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었?

과학의 시대에 종교적 영성은 이미 낡은 이야기?

경쟁과 협력, 어느 것이 진화의 비밀일까?

세상을 바꾼 책들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좋은 정치, 행복한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아직 잠들어 있는 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의 실체입니다.

불가능을 꿈꾸는 것에서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만일 그 미래로부터 자금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확실한 자신의 삶을 설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과 함께 하는 Book Talk, 함께 기쁜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 문의 : 중앙도서관 열람과
T. 02-961-0074, 0078 E-mail, khds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보도

교수의회. 서울지회 분리 쟁점
총학생회, 학생관심이 핵심

각급 단체 선거 전망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2014년 11월은 총장 선임, 교수의회, 노조, 학생회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4년에 한 번 있는 달이다. 이 중 차기 총장은 10월 31일 학교 법인 경희학원 이사회가 조인원 현 총장을 재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교수의회와 노조, 학생회 선거를 전망해 본다.

▲교수의회 : 서울지회의 분리 움직임이 최대 이슈다. 교수의회는 서울, 국제, 의학 3개 지부로 구성돼 있으나, 서울지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서울캠퍼스 전체 교수를 상대로 분리 동의를 받으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지회 측에 따르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교수의 답변이 5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서울지회 이성근 위원장은 “갈등을 떠나 전공 특성에 맞게, 학교와 논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분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울지회는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선거를 진행해 독립지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교수의회는 지난달 17일 서울지회의 교수의회 복귀를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했지만 지회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은 “교수의회가 분열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교수의회 모든 의장단과 대의원들의 바람이다. 서울지회가 조속히 복귀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아직 서울지회가 복귀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회 : 양 캠퍼스 학생회 모



권오은 기자 typhoon@khu.ac.kr

경희를 그려나갈 구성원 대표선거가 임박했다

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학생회 선거의 핵심은 결국 ‘관심’이다. 당장 입후보자의 경우 최근 단선은 고사하고, 후보자가 없는 학생회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를 역시 일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50%를 채우기도 한다.

결국 서울캠퍼스 중선관위에서는 ‘전자투표’까지 의논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도입될 경우 우리학교에서는 최초로 학생 대표 선출 과정에서 전자투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생긴 국제캠퍼스의 선거 시행세칙 중 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7조 선거권 3항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3항의 내용은 ‘선거권자가 4학년인 경

우 투표자에 한해서 총선거권자 수와 투표율에 포함시킨다’이다. 4학년의 휴학이나, 외부활동이 많아 투표율이 저조한데서 나온 방안이지만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조합 : 아직까지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투표 시기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될 의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이후 4번의 단선 이후 5번째 만의 경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는 달리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울지회 독립선언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교수의회, 경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노조,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구성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학생회 등 각급 선거마다 안고 있는 고민들이 작지 않은 만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차차기 총장 선출제도 검토할 특위 설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박지하씨 추천

대학평의원회 결과

이재은 기자

대학평의원회 결과 총장선출제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박지하 학생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열린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법인 이사회와 총장이라는 주요 직위에 구성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총장선출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에는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 대표 각 1인씩 참여하고, 평의원회 의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계획이다. 또한 평의원회가 새롭게 구

성돼도 특별위원회 운영을 지속하고, 총장선출제는 연구과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 합의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제 출범 단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의원회 동석호 의장은 “개교 65주년을 맞이해 총장선출제로 적절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데 구성원 대표 모두 공감한 결과”라며 “총장선출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안되는 내용을 차기총장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추천위)도 지난달 24일 열렸다. 총 5명이 참여하는 추천위는 법인추천

위원 2명, 대학평의원회 추천위원 2명, 부속기관 학교장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대학평의원회 추천된 2명은 대학평의원회 동석호 의장과 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평의원회는 개방이사 후보로 김진수 씨와 김학균 씨, 박지하 학생개방이사 후보 등 총 3명을 추천했다.

특히 박지하 학생개방이사 후보가 추천됨에 따라, 추천위는 학생이 법적으로 이사 자격이 되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한 상태다. 교육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다음 추천위 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천위에서는 2명의 개방이사 추천후보를 선출하고, 최종 1명은 이사회의 호선을 통해 선임된다.

평화의 전당, 피뢰침 8m → 10m 길이로 교체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서울】 평화의 전당 보수공사가 지난달 23일 마무리 됐다. 지난 6월 낙뢰로 인해 평화의 전당 상단 부조물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뢰침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낙뢰가 부조물을 직접 강타했고, 이 때문에 부조물이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관리팀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피뢰침 진단을 마치고, 8m 길이의 피뢰침을 10m 길이의 피뢰침으로 교체했다. 8개의 보조피뢰침도 추가 설치했다.

다만 석재부조물의 보수는 각종 행사가 개최돼 공사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관리팀 측은 “현재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됐고, 자체검수도 완료했다. 검수팀의 최종 검수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화의 전당 외 다른 학내 건물에 대한 피뢰침 설비 진단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른 건물의 피뢰침 등도 교체될 전망이다.



2015학년도 동서의학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전공)	학 위 명	세 부 연 구 분 야	모 집 과 정			
			석사 신입	박사 신입	편입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박사	동서학전/통합의학 출기세포학 신경약리학	○	○	○
	대체보완 의학전공	대체의학 석·박사	통합생리학 자연요법학 심신의학	○	○	
동서의과학과	석의약소 재학전공	의과학 석·박사	소재화학/생유기화학 대사생화학/생화학 세포생리학/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	○	○
	한의학과학 전공	한의학 석·박사	신경과학/임상생리학 면역/생리병리학	○	○	○
의학영양학과	의학 영양학/임상영양 학전공	의학영양학 석·박사	질병영양/한방/임상영양학 예방영양/보간영양학 면역영양/중용영양학 피부영양/기초영양학	○	○	○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자에 한함.

II. 모집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전형 안내	2014.10.13.(월) ~ 11.13.(목)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원서 접수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우편(방문)접수, 이메일접수
서류 제출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관 203호)
전형 일시	2014.11.22.(토) 10:00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합격자 발표	2014.11.27.(목) 16:00 예정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예치금 등록	2014.12.01.(월) ~ 12.05.(금)	하나은행 전국지점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합격자 등록	2015.02.02.(월) ~	확정 있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가. 석사과정

구 분	학 과	전 공
신입생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제법학과	중국제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편입생	전세학과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구 분	학 과	전공
연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중국제법학과	중국제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특별과정	한·영 법률 번역과정(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직무,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2.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석사과정	신입생 ·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편입생 ·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연구과정	· 학력 제한 없음
특별과정	

3. 전형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0. 20(월) ~ 11. 7(금)	2014. 11. 24(월) ~ 12. 5(금)
전형일	11. 8(토) 10:00	12. 6(토) 14:00
합격자 발표	11. 11(화) 16:00	12. 9(화) 16:00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11. 12(수) ~ 11. 14(금)	12. 10(수) ~ 12. 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http://interlaw.kh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장신청) - 본 대학원 홈페이지(inter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나.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전적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편입학 지원자에 한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5학년도 교육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구 분	일 시	비고
원서접수	2014.10.29(수)~11.12(수) 17:00(직접방문제출 : 10:00~17:00까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유웨이어플라이 접속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		우편발송은 11.12(수) 우편소인분까지만 접수가능
교원자격 취득 부적격자 통보	2014.12.03(수) 15:00	해당자 개별 유선통보
필답응시 전공	전공시험 2014.12.06(토) 10:30~12:00	영어교육(서울), 음악교육, 체육교육
면접시험	2014.12.06(토) 14:00	
필답미응 시 전공	면접시험 2014.12.06(토) 14:00	지원자 전체
합격자 발표	2014.12.17(수) 15:00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조회
합격자등록	2015.01.05(월) ~01.09(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출력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1. 전형료 : 75,000원
(전형료 70,000원 +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
2. 문의처 : 서울C 02-961-0135~6 / 국제C 031-201-2201~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학년도 평화복지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단기 인턴십 재정 지원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 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4년 11월 10일(월) ~ 11월 19일(수)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전형기간 : 2014년 11월 10일(월) ~ 12월 3일(수)
- 문의처
이메일 gip@khu.ac.kr 문의전화 031-570-7012~6

일자	전형내용	비고
11월 19일(수) (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서류마감	
11월 26일(수)	필기시험	
12월 1일(월)	1차 면접	
12월 3일(수)	2차 면접	
12월 1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대학 홈페이지 관리 계정 도용 교외접속 차단 원인규명 진행중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우리학교 홈페이지(www.khu.ac.kr) 관리자 계정 도용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관리자 명의로 ‘경희대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까까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으로, 두 게시물은 4시간 동안 각각 1만 3,000건과 9,8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초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나 학교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알려져 추가피해를 우려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관리자 계정을 단순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지원처 측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권한은 홈페이지 관리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지원처는 현재까지 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차원의 1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출판문화원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해당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의뢰할지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대학 외부에서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모두 차단된 상태이며,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보안 역시 강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후속조치인 것이다.

한편 게시물이 약 4시간 동안 방치돼 허술한 대응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웹 기획과 페이지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출판문화원이지만 보안전문 인력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일에는 휴일로 인해 업체 측과의 연계대응 과정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출판문화원 측은 대학본부에 보안 전문 인력 충원 요구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여도 ‘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 이뤄야”

총여학생회 인식도 조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양성평등연대 김동근(Postmodern음악학 2008) 대표와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남슬기(스페인어학 2012) 회장의 인터뷰가 지난 9월 대학주보 제1576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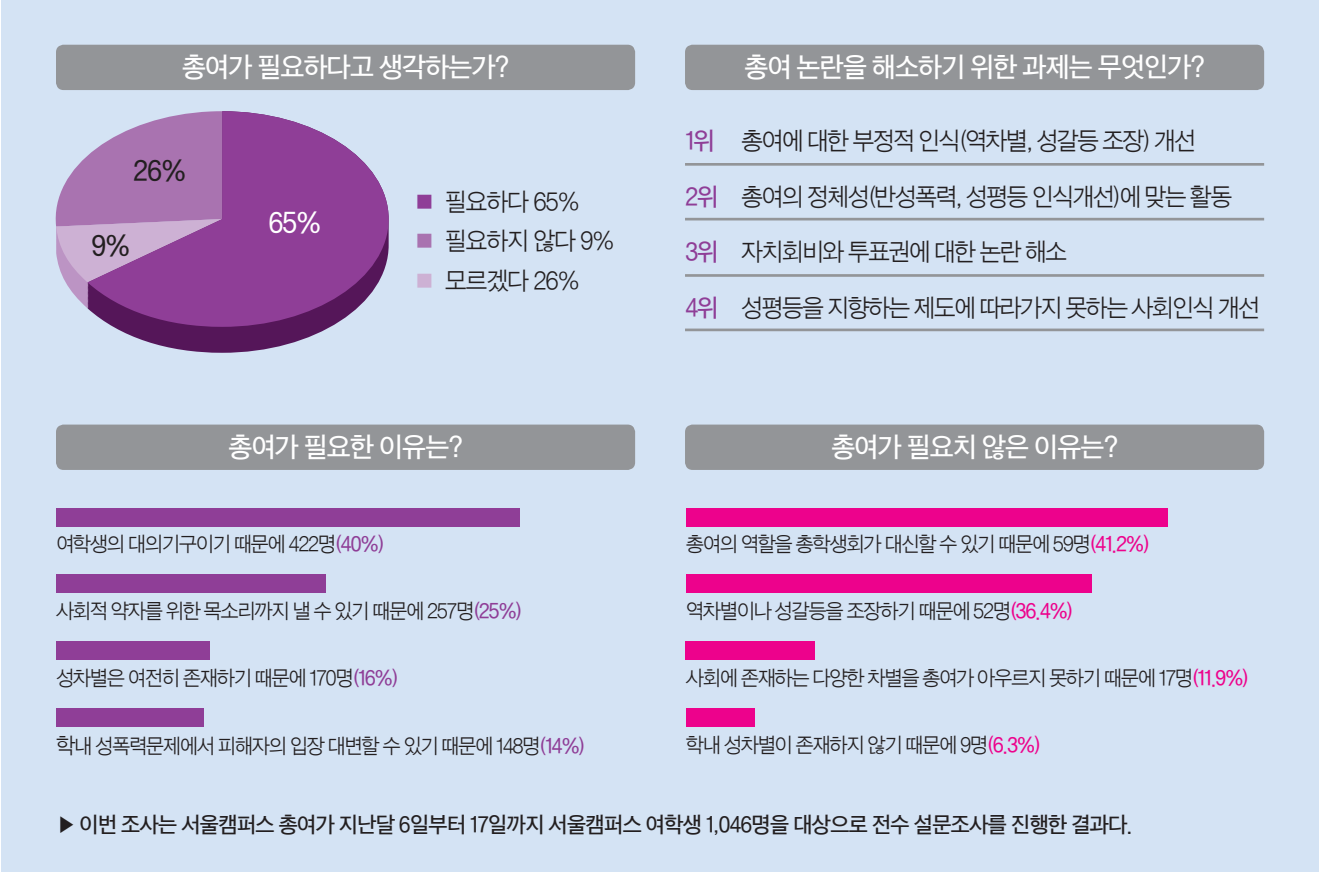
총여와 생리공결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 대표와 이를 반박한 남 회장의 인터뷰내용은 대학주보 온라인에서 6,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보 페이스북을 통해서 1만 명이 열람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어진 논의는 예상보다 예민하고 감정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캠퍼스 총여가 자치회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100% 참석을 기록해 개근상을 받았다.(음악대학 학생회 역시 두상을 모두 수상했다.) 자치회비 콘테스트와 개근상이 상징하는 것은 서울캠퍼스 총여가 ‘청렴하게’ 운영됐고, 또 성실하게 대표직을 수행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총여의 역량 문제에서 이들은 자유로운 것일까하는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서울캠퍼스 총여 환경(정치외교학 2011) 회장과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회장을 지난달 30일 만났다.

-자치회비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치회비는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낸 소중한 돈이다. 때문에 쓸 때마다 논의를 했다. 정말 긴장하며 썼다. 돈의 목적과 의도가 학생들이 정당하고 또 투명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했다. 첫 번째 공약이 ‘자치회비의 투명한 공개’였는데, 수상해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

-중운위에 32회 모두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개근’할 수 있었던 동력이 궁금하다.
“지난해 총여가 공식이었던 만큼 올해 행보가 더 중요했다. 신뢰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역시 성실성과 진실성이었다. 한정된 시간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때문에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특히 총여의 특성상 기증, 즉 학생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올라오는 창구가 제한된다. 중운위에서 다른 단과대학 회장을 통해 각 단과대학 별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했다.”

덕담을 나누고, 본론을 꺼냈다. 총여 존



4대 보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③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4대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민간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고, 가입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 더불어 사회보험이 유지되려면 재정적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험의 목적인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민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납부해야한다.

4대 보험의 개념에 대해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 뒤에 살펴볼 내용 이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4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료 계산과 보험급여까지 확인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자주 겪는 문제만 짚어 보겠다. 알바 노동자 썬썬 씨는 편의점 알바 노동을 하고 있다. 썬썬 씨는 근로계약서도 썼고, 최저임금도 보장받고 주휴수당도 받는다. 하지만 사장님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에서 돈이 나간다. 그러니 보험은 듣지 말자”라고 한 말을 믿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일했다.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6개월 후 해고당했다. 사장님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물론 일부는 사실이다. 보험료를 월급에서 납부하니 말이다. 쉽게 이야기 해보자.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국민연금으로 얼마 낼까? 4.5%를 근로자가, 4.5%를 사용자가 납부한다. 즉 근로자는 4만 5천 원만 내면 된다. 그렇다. 사실 국민연금은 밥 한 끼 먹을 돈이 아까운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일하다가 다쳤어요”라고 강조해서 말하자. 이 내용이 첫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본성격	소득보장장기보험	의료보장단기보험	실업고용중기보험	산재보상단기보험
납부율	근로자 4.5% 사용자 4.5%	근로자 2.995% 사용자 2.995%	근로자 0.65% 사용자 0.65%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하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100보 양보해서 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있다면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 내도 좋다. 단, 독립을 했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100만원 벌 때 3만원 정도를 납부한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5.99%로 사업자가 2.995%, 노동자가 2.995%를 납부한다.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실 가장 핵심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고용보험은 0.65%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6개월 이상 일한 상태에서 해고당하거나, 정리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일하다가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해도 누적된다. 심지어

등록만 하면 하루 단위로도 누적된다. 돈도 얼마 안 들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듣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 사직서를 쓰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해고된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면 병원비, 임원비 경우에 따라 생계비도 지급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한 톨도 내지 않는다. 전액 사장님이 내는 것이니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자. 단 산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일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해서 다치면 대부분 산재적용이 된다. 사장님이 병원비를 주면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 받으라고 하면 그 돈으로 치료받고,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배달아르바이트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꼭 산재보험을 적용받자.

산재와 관련된 포인트는 두 가지다. 일단,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때 “일하

다가 다쳤어요”라고 강조해서 말하자. 이 내용이 첫 진료기록에 남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진료 받고 병원 카운터에서 “산재 받으려고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이 두 마디면 이후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썬썬 씨는 사장님의 말에 속아서 약 6만원을 아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만약 재고정리를 하다가 허리라도 다쳤다면 산재적용도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우선 4대 보험 모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가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소급 적용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속인 만큼, 지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다. 길게 설명했지만 “알바도 적용되는 것이 맞아?”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4대 보험 가입대상에서 노동자 부분을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보험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라고 되어 있다. 알바를 하고 있는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권리인 만큼 겁내지 말자!

참여마당

이예찬

(중국어학 2014)



카톡 검열, 국가안보의 길인가 국민 탄압인가

‘카카오톡 검열’이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이버 상(모바일 상)에서 벌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지나쳤다면 카카오톡 검열은 이를 단속하기 위한 일종의 모니터링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이 대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정신을 잘 드러내 준다. 찬성 측은 이를 논거삼아 현재 상황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란 국민의 동의하에 세워진 국가의 통치체제를 반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대통령과 현 정부를 향한 극좌파의 무차별적 인신공격인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규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사상적 자유를 내포하는 양심적 자유는 허용되 자신의 특정 사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이 그들의 주된 논거다.

그러나 사실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니 좌우 이념간의 대결구도와 같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나도 그 검열 대상이 되는가?’를 걱정한다. 현재 정부는 ‘검찰을 통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 카카오톡 상에서 발생한 특정 대상 사이의 대화는 검열이 가능하나 이는 실시간 감청이 아니며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골이 깊어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대중의 공포 심리를 자극하였고 대대적인 ‘사이버 망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입장의 시비여부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검열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카카오톡 검열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가, 국민의 권리침해인가’로 정리될 수 있겠다.

현대적 ‘국가’는 그 존재근거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사회 계약론’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분명 현 정부의 조치는 다소 극단적이며 과격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밝힌 입장으로 정말 사이버 상에서 일명 ‘종북’이라 속칭되는 무리가 정권전복과 용공주의 실현을 위한 반정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면 말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정부가 부패한 모습을 보일 때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이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은 애국의 길이 되지만 국가체제를 뒤집으려 하는 시도는 유래 없는 대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체제란 과거와 현재에 있어 국가존재의 근본이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기에 민생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특정한 편에 서서 판단하기 이전에 명심할 점은 진정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도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절대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내에서 보편타당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면에서 이어짐

이반은 대심문관을 자신의 ‘이론-분신’으로 내세우며 스스럼없이 신을 죽였지만, 정작 현실에서 아버지가 살해되자 극도로 당황한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 참극이 발생할 것임을 예감했음에도 그냥 떠나버린 죄(“기대의 권리”), 자신의 ‘실제-분신’인 스메르자코프에게 은연중에 살인을 교사했을 뿐더러 그의 자살을 방치한 죄 등으로 고뇌하면서 그는 완전히 미쳐버린다. 실상 문제는 작가가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도발적인 사상과 함께 그에게 선사한 ‘선악의 피안’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즉,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자유이다. 이반이 ‘위대한 죄인’인 것은 죄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향유한 자유와 양심의 크기(죄의식) 때문이다.

분석적 ‘이상’의 육화인 이반과 나란히 ‘감성’의 육화인 드미트리, ‘영성’의 육화인 알료샤가 각기 죄와 벌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죽이고 싶었다는 이유로 천부살해의 누명을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친구사례의 테마는 정치적 차원(차르를 죽이다: 혁명)과 형이상학적 차원(신을 죽이다:무신론)을 아우른다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쓰는 수난을 겪는다. 알료샤는 ‘관념’에 맞서는 ‘삶’으로서 조시마 장로의 “시체 썩는 냄새”(“기적”에의 유혹)를 극복하고 소설 속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또 다른 카라마조프인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러시아식 허무주의의 심연을 드러내 보인다. 결국 한 집안의 참극을 통해 작가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며 우리를 구원(=신)으로 이끌고자 한다.

이렇게 총체적인 화해와 사랑을 역

설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유흥수에 평생 가난과 간질 병과 도박벽에 시달린 도스토오프스키가 스물네 살 연하의 아내, 어린 아들딸과 더불어 인생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며 쓴 소설이다. 짧은 카라마조프들과 소설 속 소년들은 작가 자신의 아이들인바, 이 결작은 정녕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바쳐진 ‘위대한 유산’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1박 2일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는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4.11.7.(금) ~ 11.8.(토)
- 대상 : 서울캠퍼스 남녀재학생 16명(남 8명, 여 8명)
 - ※ 참가대상자 50%는 신입생
- 장소 : 청평자연휴양림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 ※ 예치금 1만원 (프로그램 참가시 돌려드립니다)
 - ※ 우리은행 126-177170-02501 (예금주 : 김미경)
- 신청처 : 대학본부 공지사항과 여학생과 홈페이지 (<http://web.khu.ac.kr/~wss0208>)
- 접수기간 : ~ 2014.11.6.(목)
- 문의 : 02-961-0208 / khsa0043@khu.ac.kr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스포츠 / 문화

국가대표 필드하키 장수지(교육대학원 2010) 선수

‘금’에 빛나는 선배, 학교와 후배에 무한 애정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필드하키 팀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차지한 아시아 정상자리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 필드하키 팀의 유일한 골키퍼로 참가한 장수지(교육대학원 2010) 선수는 우리학교 동문이자 현재는 우리학교 교육대학원생이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현재까지의 선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장수지 선수는 이번 대회가 아시안 게임으로서는 세 번째 출전이었다. 우리학교 재학 중에 출전했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땀었다. 그는 “아시안게임은 선수 은퇴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출전이었는데 금메달을 따서 더욱 뜻 깊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장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은 험난했다. 지난 대회까지는 후보 골키퍼까지 두 명을 선발했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장수지 선수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훈련에 바로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 명만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발표 전까지 가슴을 졸였다”며 “오직 한 명만 뽑았기 때문에 이번 발탁은 정말 뿔 듯이 기뻐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선발됐던 만큼 그녀는 온 열정을 이번 대회에 쏟았다고 한다. 그녀는 “개인 운동, 새벽운동 등 여태까지 해왔던 선수 생활 중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노력은 아시안게임에서 빛을 발했다. 예선 세 경기,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총 5번의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준결승 때 아쉽게 한 골 뺏긴 것을 빼고는 모두 무실점이었다.

그녀는 골키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활약을 했다. 비록 1실점을 했지만 이 부분도 너무나 아쉬웠다. 그녀는 “골대 측면 열망을 갖고 골대 망이 흔들린 것을 심판이 골이라 판단했고, 비디오 판독에서도 불이 골대측면을 맞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래도 한 경기를 제외하고 무실점으로 막아내 골키퍼의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 선수는 후배들에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요즘 학내에 돌고있는 필드하키부 해체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필드하키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 선발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는게 그녀의 걱정이었다. 그녀는 “하키부 학생들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선배로서 후배들을 찾아가 응원을 자주 못해주는 점이 미안하다”며 “지금 우리학교 하키부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며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시 장수지 선수는 전국체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훈련 중이었다. 그는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대학원 졸업을 위해 학업에 열중할 예정이다. 또한 그녀는 “선수 생활의 마지막 대회가 될 올림픽 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골문을 빈틈없이 지켜냈던 그녀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학문과 현실의 만남,
20세기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다

제2회 후마니타스 가을 영화제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제2회 후마니타스 가을 영화제’가 ‘20세기 폭력의 역사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문화기획단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이나 인종갈등, 인권유린 사례 등을 짚어보고, 과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화제를 준비한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은정 교수는 “지난 1회 영화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다소 철학적 물

음을 토대로 진행했으나, 참여하는 학생이 적었다”며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획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성원은 별도의 예약이나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상영 시간표〉

상영일시	상영작
11/5(수) 오후 6시	태양의 제국 Empire of the Sun
11/6(목) 오후 5시	레드 톰 Red Tomb ※ 감독과의 대화
11/7(금) 오후 6시	토끼 울타리 Rabbit-Proof Fence
11/10(월) 오후 6시	오파셜 스토리 La historia oficial
11/11(화) 오후 6시	거북이도 난다 Turtles Can Fly

캠퍼스에서 만나는 아프리카 야생동물



‘AFRICA : wildlife’ 특별사진전

권오은 기자

【서울】‘AFRICA ; wildlife’ 특별사진전 개최행사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지난 28일 진행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박여옥 사진작가가 지난 2008년 보츠와나의 ‘모레미 야생보호구역’과 ‘뉴자이판 국립공원’ 등에서 찍은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 26종의 동식물 사진을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6가지 주제는 AFRICA 철자에서 따온 Aqua(물), Family(가족), Rest(휴

식), Incidents(사건들), Change(변화), Ambience(분위기) 등이다.

박여옥 사진작가는 “이번에 전시한 사진 속 동물 모두 멸종위기 상태라는 것을 준비과정에서 알았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실제로 동물을 보지 못하고, 사진이나 책으로만 만나야할지 모른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늘 자연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열리며 관람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관람료는 무료다.

www.kia.com

기아자동차, 놀라움은 멈추지 않는다

인터브랜드 선정, 2014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74위
2007년 디자인경영 선포 이후 7년만에 브랜드가치 480%상승

— 2014년 베스트 글로벌 그린 브랜드 35위
— 최근 5년간 글로벌 디자인 상 45개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상 석권

Best Global Brands 2014

Interbrand Creating and managing brand value™

Apple	Google	Coca-Cola	Microsoft	Toyota	McDonald's
Mercedes-Benz	BMW	Honda	Nike	Volkswagen	Canon
Ford	Audi	Nissan	Porsche	Chevrolet	Land Rover

The Power to Surprise